

은유와 인문학

양명수*

1. 은유가 없는 개념 언어: 할 말을 다 한 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는 개념 언어가 많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하는 힘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발달한 근대에 이르러 개념 언어가 더욱 많이 발전했다. 물론 근대에 발달한 생각은 이른바 반성(reflexion)이다. 반성이란 자기에게로 돌아감이다. 이 말을 우리는 돌이키고 뉘우친다는 뜻으로도 쓰지만, 근대의 반성 철학에서 말하는 반성은 자기로 돌아가 자기 위주로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서 근대의 주체가 탄생하고 반성 철학은 곧 주체 철학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탄생시켰다. 인간 중심주의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신과 자연을 주변으로 밀어내는 도식이다. 오직 사람만 주체고 자연은 객체가 되면서 과학이 발달한다. 신이 객체가 되면서 신의 죽음이 발생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신의 죽음이란, 권위의 근거를 사람 바깥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앎은 지혜(꺄 sapientia)보다는 지식(知 scientia)의 주로 재편되고, 모든 학문은 싸이언스 곧 과학이 된다. 인문학도 인문 과학이 된다. 칸트가 쓴 낱말을 빌어 말하자면, 생각(Gedanken)보다는 앎(Erkenntnis)이 득세하고 그의 변증론보다는 분석론이 더욱 이바지한 시대가 근대였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면에서 인간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권위를 비신성화하고 사람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언어는 개념 언어 쪽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인간의 사상의 역사는 개념 언어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문학의 개념 언어는 은유와 거리가 멀지 않았다. 이른바 유비(아날로지)를 제외하고는 인문학의 개념 언어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개념에는 의미 지층이 있으며 그 지층의 밑으로 갈수록 은유와 상징 언어가 지배하고 있다. 상징 언어로부터 개념 언어가 나온 것이다.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개념 언어의 뿌리는 은유와 상징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개념 언어는 상징 언어와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표상이 들어간 상징 언어를 쓰다가 차차 추상스런 개념 언어가 독립해 나왔다. 상징 언어가 지배하던 시대는 세상과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물이 모두 씨니피앙의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주도하려는 노력이 세상의 비신성화(desacralisation)로 나타났고, 추상스런 관념어의 발달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전에는 학문의 언어가 유비와 뺄 수 없었고 따라서 시 언어인 은유와도 선이 닿아 있었다. 말하자면 인문학이 학문을 주도했다. 그러나 근대 들어 개념 언어의 발달은 자연 과학이 주도했다. 상징 언어로부터 벗어났다. 정확하고 수량 측정에 따른 분석 언어들이 언어의 힘으로 각

광받기 시작했고, 그것은 인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인문학이 인문 과학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이성에 따른 합리화가 일어났는데 존재론의 이성보다는 기술 이성이 발달했다. 존재론적 이성 역시 논리와 개념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진리에 닿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유비와 은유를 중시했다. 유비나 은유는 귀속과 한계의 언어다. 내가 이미 어디에 귀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거리를 두고 이루는 관찰과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이성은 모든 것을 재단하고 손 안에 넣는다. 그러므로 자연 과학의 개념 언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정확히 측정하고 재어 법칙을 찾아내고 신비를 벗기는 역할을 한다. 신비를 벗기는만큼 자연은 인간의 손 안에 들어 온다. 자연 과학의 언어는 지배 언어다. 과학은 가치 중립이라고 하지만 이미 권력의 언어다. 물론 인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지녔지만 말이다. 상당히 목적성을 띤 언어다.

은유가 없는 개념 언어에는 사회 과학도 들어 간다. 자연 과학이 인문학에 영향을 주어 탄생한 것이 사회 과학이다. 근대에는 자연 과학과 함께 사회 과학이 발달했다. 사회 과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관계를 해결하려는 학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언어가 필요하다. 위기와 갈등이 있는 곳에는 은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뚜렷하고 투명한 언어가 필요하다. 근대 사회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신분 사회와 달리, 갈등을 숨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어 정의롭게 해결하는데서 평화를 찾았다. 만민 평등 선언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쟁 사회를 만들었다. 경쟁에서 우열을 가리고 재는 언어,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언어는 주체롭고 정확한 언어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근대에 사회 정의가 강조되면서 갈등을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필요했다. 수학 언어 또는 정확한 개념 언어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 suum cuique>이다. 각자의 몫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따진다. 정의는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유와는 거리가 멀다. 적어도 사회 정의는 그렇다.¹⁾ 물론 은유도 강력한 정의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는 언어는 아니다. 힘과 정열을 이끌어 내는 언어는 될 수 있지만, 그 힘과 정열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밀한 언어는 아니다. 모든 생산과 분배 그리고 모든 인간의 활동을 계산하고 측정하려는 것이 정의론의 꿈이다. 그래서 적어도 근대의 사회 정의론에서는 공리주의 이론이 지배하는 것이다.

자연 과학의 언어는 자연을 지배하는 언어요, 사회 과학의 언어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언어다. 지배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날카롭고 투명하고 정확한 언어가 필요하다. 무얼 가리키는지 그 뜻이 정해져 있는 언어이어야 하며, 해석이 필요한 언어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의 언어는 은유가 없는 개념 언어다. 은유란 넘치는 뜻을 붙들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근대에는 사람과 자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감추지 않고 전면에서 드러내어 문제를 풀려고 한 시대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존의 권위에 복종하는 시대는 끝났다. 문제를 자꾸 들추어 낸다. 근대의 비판 정신이 바로 그것이요, 뛰어난 학문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들추어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억압 관계를 들추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넘치는 뜻을 버리고 뾰족한 뜻이 필요했다. 뜻이 흩어지면 안되고 정해져야 했다. 그런 점에서 사회 과학의 언어도 자연 과학의 언어만큼이나 기술 언어다. 재고 부리고 써

1) 개인 윤리에서 정의는 사랑이다. 거기에는 따지고 분배하는 언어가 작용하지 않는다.

먹는 언어다. 것처럼 은유와 시언어를 버리고 기술 언어가 발달한 것은 인간 해방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조선 시대 양반들의 시에서 멋과 여유를 느끼지만, 그 멋은 신분 사회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의 억압을 거름으로 삼은 것이다. 누구는 멋을 부리고 누구는 거름으로 썩어갔던 것이다. 과학이 없는 은유는 엘리트 언어요 또다른 지배 언어일 수 있다. 근대의 은유없는 과학 언어는 근대 이전의 과학 없는 은유라는 지배 언어를 역전시킨 지배 언어다. 새로운 지배 언어는 인간 해방을 위해 나온 것이지만 지배 언어기 때문에 억압 요소를 담고 있다. 남(자연과 신)을 누르는 자가 눌리는 것이다.²⁾ 근대 이전의 신 중심주의와 근대의 인간 중심주의는 지배 체제라는 점에서 모두 소외를 안고 있다.

근대의 개념 언어의 자리가 어디고,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더 살펴보자.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이 시대에 은유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은유는 넘치는 뜻을 붙들고 있는 말이라는 점에서 정신 언어다. 넘침과 풍요로움은 결국 의미의 문제요 의미는 결국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 생활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절대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고 상대량에 있어서 정의로운 분배가 필요하다. 그래야 건전한 정신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참 자유란 상대 비교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의 절대 물질량을 바탕으로 높은 정신 생활을 하는데 있다. 그러나 어쨌든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주린 민중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기존의 억압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물질의 절대량을 늘리고 물질의 분배를 감시하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자

2) 오늘날 생태계 문제나 가치 상대주의가 그 열매다.

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기술 언어다. 은유없는 과학 언어는 물질 언어이고, 그것은 정신 언어인 은유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는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풍요로움이란 없다. 말하자면 민중을 버리고 닫혀 있는 엘리트의 풍요로움은 없다. 물론 풍요로움은 과학에 있지 않고 은유에 있다.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에 있다. 그러나 그 은유가 귀족 문화의 지배 언어가 되지 않으려면 개념 언어의 비판 작업이 필요하다. 정신 생활이 구체적인 역사 현실에서의 자유가 되려면 물질을 씹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은유의 시제는 미래다.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저 앞이나 저 위에서 우리를 끄는 것에 기대어 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한 것이다. 말을 했지만 무게 중심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에 있다. 그래서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말이 퍼진다. <말뜻>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뜻>을 찾으려는 언어다. 그래서 은유의 시간은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재가 아니라 잡히지 않는 희망의 시간 곧 미래다. 그러므로 당장 씹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말로 하는데, 은유 언어는 당장 씹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물론 어떤 언어든 <쓸모>와 무관하지는 않다. 모두 어디에 쓰이는 것이요 뭔가에 씹먹을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은유 언어는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논리와 개념 언어를 불러 일으키지만 그 자체가 곧 논리나 개념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당장에 쓸모있는 언어가 아니다. 근대 사회는 만민 평등에 따른 경쟁 사회를 만들면서 당장 쓸모를 찾았다. 시제는 <당장>이다. 그래서 근대의 개념 언어는 현재 중심이다. 모든 것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본다. 멀리 떨어져 잡을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은 미래의 신비를 놓치는 것이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는 것은 대대로 강자들의

설득 논리였다. 그런 점에서 근대 개념 언어의 현재 중심은 민중과 약자를 해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은유와 상징 언어를 다시 찾아야 하지만 근대 개념 언어의 그러한 공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은유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한 것이다. 그래서 할 말을 다하지 못한 말이다. 그러나 포기한 말이 아니다. 다하지 못한 말을 품고 있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은유는 <한 말>이라기보다 <할 말>이다. 이미 말을 했지만 아직도 할 말이다. <이미>와 <아직 아니>의 변증법과 긴장에서 있다. 그러나 근대에는 그런 긴장을 버리고 할 말을 다 하도록 했다. 할 말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정의를 이루고 약자를 보호했다. 그래서 할 말을 다하는 말법과 그런 언어가 발달했다. 원래 할 말은 약자 쪽에 많다. 강자는 할 말도 별로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배 언어라는 것이 거의 그렇다. 여기서 지배란 사람에 대한 사람의 지배를 가리킨다. 물론 어떤 면에서 사람은 모두 약자다. 남을 누르는 사람도 결국 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사회 경제적인 조건에서 눌리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다. 의미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고, 무의미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다. 그러므로 강자나 약자는 결국 사회적 강자나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해방과 무의미 극복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만으로도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회 현실을 떠나서 해방을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할 말도 사회 관계에서 생긴다. 단절과 억압이 사회 관계에서 생기므로 해방을 바라는 할 말도 사회 관계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역시 할 말은 사회 약자들에게 많다. 자연 과학의 언어도 지배 언어지만 할 말하고는 관계 없다. 할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할 일>에서 나온 것이다. 할 일은 노동 언어(爲)이고 <할말>은 존재 언어(無爲)다. 원래 할 말이란 존재의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존재의 힘이다. 무의미는 강자든 약자든 가릴 것없이 모든 인간이 처한

소의 현실이다. 진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이 겪는 죽음의 현실이 무의미다. 그 무의미를 극복하려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능이요³⁾ 거기서 할 말이 생긴다. 할 말은 죽음 같은 무의미를 딛고 일어서서, 사는 것같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존재 구조요 크게 보면 존재(Sein)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저 밑에 있는 것이지만 저 위에서 끄는 힘에 이끌리어 생긴 것이다. 깊이와 높이가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대는 그러한 할 말을 하도록 노력했다. 할 말이 존재의 구조라면, 강자든 약자든 모두에게 있는 것이요, 사람은 누구든 할 말이 너무 많고 그 할 말을 다 못하고 간다. 그것은 진리와 떨어졌기 때문이고,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긋났기 때문이다. 진리와 만나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이 참되게 만날 때 할 말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할 말을 다 한다는 것은 생명이 현실을 관통하는 것을 말한다. 참이 꿈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힘이 되는 것이다. 말이 통하는 세상,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시원하게 통하는 세상이 곧 하늘 나라이다. 구원이란 곧 <의사> 소통이요, 말이 통하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그리워 하는 그림 언어가 은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위해 지금 여기서 쌓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려는 것이 근대의 개념 언어다. 그래서 근대에는 할 말을 하도록 했다. 할 말을 하도록 하면 약자들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 억압을 뿌리치려는 말은 저항 언어요 투쟁 언어요 그것은 은유가 아닌 개념 언어다. 끈적 끈적한 정을 제거하고 합리성을 집어 넣는 중립 언어다. 근대의 개념 언어가 그렇다. 진리나 삶의 의미 물음을 말하자면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겠는가?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

3) 본능이란 말을 썼지만, 프로이트 역시 자신이 말하는 에로스가 플라톤의 에로스와의 연결됨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에는 그런 존재론적 진리보다 정의를 더 중시했다. 적어도 근대화란 그런 도식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면에서 인간화와 인간 해방에 상당히 이바지했다.

할 말을 당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주체를 키우는 것이다. 주체란 자기가 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존재다. 사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기 맘과 자기 뜻은 언어로 전달되면서 남에 대한 권력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권력이란 할 말을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근대에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을 하도록 하면서 국민 주권을 택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정치 집단으로는 국민이다. 한 인간의 주체성이 정치로는 국민 주권으로 발전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근대 법과 정치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면서 <할 말> 보다는 <한 말>을 중시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할 말을 제대로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것이 정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 말이, 할 말을 제대로 한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은 한 말 곧 표시된 의사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 할 말을 했다고 보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는 할 말로는 되지 않는다. 할 말을 품고 있는 은유로는 안된다. 할 말을 해버린 말 곧 정확한 개념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은 근대의 해방인데 소외를 품고 있는 해방이다. 한 말을 해버리면서, 할 말을 버리기 때문이다. 기술 언어, 정확한 개념 언어에 관심을 쏟으면서 상징 언어나 신비를 비신비화하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에 근대의 소외가 있다. 할 말을 다시 찾는 것, 다하지 못한 말을 품고 있는 말 곧 은유를 다시 찾아야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근대는 할 말을 다 하게 함으로써 해방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차원에서 나오는

과정을 근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려고 애썼다. 처음에는 떨어지는 것만 강조하다가 다시 귀속과 공동체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헤겔이 자유를 객관과 주관의 넘어선 즉자 및 대자 곧 Sittlichkeit에서 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유가 있으려면 자연이나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말한 은유 언어가 재등장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 시언어는 자연이나 하느님의 말을 담고 있다. 저쪽에서 오는 말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한 말이지만 저쪽의 말이다. 말할 수 없는 말 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말을 한 말이다. 그래서 한 말이라기 보다는 할 말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은유 언어는 말을 한다기 보다 말을 듣는 말이다. 은유 언어도 말이요, 따라서 무의미를 극복하고 주체로 서려는 것이다. 말인 점에서 거리두기다. 말은 거리두기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 말이라기 보다 할 말이라는 점에서 은유는 존재(Sein)와 연결된 계시 언어다. 내 말이면서 저쪽의 말이요, 말을 한 것이지만 말을 듣는 것이다. 하는 말이면서 듣는 말이다. 함(爲)이 있지만 들음(無爲)이 있다.

근대에는 사람 밖의 권위를 부수면서 말을 듣는 것보다는 말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두가지를 뜻한다. 말 소리를 듣는다는 뜻도 있고,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르고 복종한다는 뜻도 있다. 칸트의 자유는 자율이었고 그것은 누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여기서 누구란 다른 사람 또는 자연이나 하느님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자연이나 신의 말은 배제되었다. 물론 사회에서는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서도 들을 말보다는 할 말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할 말을 한 말들이 모여 객관 권위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근대의 객관성이란 사람 바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치된 말이다. 인위(人爲)가 문화의 축을 이루면서 주체를 이룩했다. 들음보다는 함이다. 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자연이나 하느님과 떨어지면서 이룩한 자유였다. 개념 언어는 떨어지면서 생기는 언어다.

그러나 은유는 귀속의 언어요, 들을 귀를 여는 언어다. 우리는 자유에서 떨어짐의 중요성을 잘 안다. 자유라는 말의 뜻에 그 점이 잘 들어 있다. 흔히 자유라면 어디로부터 벗어남을 뜻한다. 그것은 자유의 완성은 아니지만 억압의 현실에서는 필요한 과정이다. 거리를 두는 과정이 없이, 사람과 사람이 영켜 있고, 사람과 하느님이 영켜 있으면 자유가 없다. 진화는 그런 무리로부터 개체가 떨어져 나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진화란 자유의 실현 과정이다. 그러나 참 자유는 역시 만나는데 있다. 우리가 서로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관계의 아프리오리를 담고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경외심을 담는 언어가 필요하다. 자연과 신이 사람에게 대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신에 대해 있음을 선언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상상력을 담은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인문학의 언어다. 근대 이후 인간은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에서 자유를 시작하지만 인문학에서 자유를 완성할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언어는 인문학의 언어다.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은 힘을 키웠고 인문학은 그 힘의 방향을 정해 성숙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힘 때문에 망한다.5) 거리두기와 귀속의 변증법을 담고 있는 언어 곧 은유가 다시 중요하게 떠올라야 한다. 인류의 진화 또는 문명사에서 볼 때 은유에는 그런 뜻이 있다. 리콰르는 그의 『살아 있는 은유』 마지막 문장

5) 오늘날 생태계 문제나 생명 윤리 문제는 사람이 거대한 능력을 소유하면서 생긴 문제다.

에서 이렇게 말한다. “시언어에 들어 있는 긴장스런 진리에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은폐된 변증법이 있다. 전체가 귀속되어 있는 경험과, 거리를 두어 사변적 사고를 여는 힘 사이의 변증법이다.”⁶⁾

이제 인문학을 말해 보자. 인문학의 언어는 은유와 연결된 개념 언어다. 인문학을 하는 것과 시를 짓는 것과는 다르다. 인문학도 생각이요 학문인 한, 논리를 세워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따짐이 있는 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있다.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에 빠지지 않고 거리를 두어 자유롭게 주체스럽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없이 산다는 것은 현실에 그냥 몸을 맡기고 흐름에 따라 또는 본능에 따라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인문학도 어느 정도 현실을 손에 잡으려는 것이고 주도하려는 것이다. 방향을 가늠하여 잘 살아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쓸모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은 상당히 존재에 기대고 있는 언어다. 그래서, 시언어와 같은 은유는 아니지만 은유에 기댄 언어다.

그것을 가리켜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비(아날로지)라고 했다. 존재의 유비(analogia entis)가 그것이다. 유비는, 인문학이 자연과학이나 사회 과학과 달리,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 어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⁷⁾ <하느님의 본질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이며 말로 표시하는 것 이상이다>⁸⁾ 하느님에 대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느님은 단순하고(simpliciter) 자립한다(subsistens).⁹⁾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

6) P.Ricoeur, *La métaphore vive*, Paris, 1975, p.399.

7)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Summa Theologiae 2』, Qu. 13, art. 3, 정의채 역, 성 바오로 출판사, p.51. 이 글에서 밝히는 쪽수는 정의채 역본의 쪽수다.

8) 같은 책, Qu. 13, art. 1, p.34.

9) 같은 책, Qu. 13, art. 1, p.35.

한 것을 표현하려면 추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자립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다. 자립은 존재의 힘이요, 참 힘은 언제나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자립을 표현하려면 구체적인 말을 써야 한다. 결국 서로 모순되는 추상과 구체를 같이 써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말의 한계요 역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존재론적 진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래야 주체롭게 살기 때문이다. 죄의 세상에서 사람이 자유할 길이요, 그것은 하느님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유비란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피조물에서 인식한 것에 빗대어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피조물에서가 아니면 하느님께 명칭을 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느님과 피조물에 대해 어떤 것이 말해지는 것은 다 하느님께 대한 피조물의 어떤 질서에 따라 말해지는 것이다>¹⁰⁾. 하느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 이미 하느님과 무슨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유비라는 말법이 바로 그것이다. 유비란 하느님께 대한 사물의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다.¹¹⁾ 사물과 하느님의 관계를 표시하면서 사람은 하느님에 대해 관계의 손을 뺀다. 유비는 이미 관계 언어다. 유비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개념으로 표현된 명제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사람과 하느님의 관계가 들어 있다.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유비는 주체 언어이면서 은총의 언어다. 인문학이 진리를 논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진리를 부르는 것이다. 유비에는 것처럼 존재론적인 귀속과 구원의 희망이 있다.

10) 같은 책, Qu.13, art.5, p.51.

11) 그러나 사물에 대한 하느님의 관계가 먼저 있다. 하느님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이다. 여기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신학 또는 초자연 신학과 다르다. 그래서 유비는 주체 언어이면서 은총의 언어다.

그 뜻이 퍼지기만 하는 은유(metaphora)와 달리, 개념으로 진리를 생각하는 언어가 유비다. 그것은 순전히 다의(多義 aequivocum)도 아니고 일의(univocum)도 아니다.¹²⁾ 다의도 일의도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의 언어는 시언어와도 다르고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의 언어와도 다르다. 진리에 기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언어는 귀속의 언어이면서 떨어져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부추기는 언어요, 인문학은 그 언어를 받아 해석하는 언어다. 시언어가 신비를 머금고 있다면, 인문학의 언어는 어느 정도 그 신비를 푼 언어다. 그러나 근대의 개념 언어 또는 비판 언어에 비하면 귀속의 언어다. 진리에 기대 있는 언어다.

인문학의 언어¹³⁾는 개념 언어이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와 전혀 다른 개념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다. 개념인 한, 한계와 범위를 정하고 꼬집어 말하는 것이다. 말과 지성과 개념은 서로 통한다. <말은 지성의 표시(signa intellectum)이며 지성은 사물의 유사다>.¹⁴⁾ 지성은 사물을 포착하는 것이며 개념(conceptio)을 매개로 포착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의 표시가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지성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일화 작업이다. 흐트러진 것을 일관된 질서로 묶는다. 그러면서 삶을 주재하고 운용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말한다는

12) 같은 책, Qu 13, art. 5, p. 51. 사실, 아퀴나스가 일의와 다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똑같이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느냐의 문제다. <어떠한 명칭도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해 일의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순전히 다의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같은 책, Qu 13, art. 5, p. 50).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상징론에서 말하는 언어의 흘뜻과 겹뜻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된다.

13)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언어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당시 신학 언어는 곧 인문학의 언어다. 오늘날에도 아퀴나스의 얘기는 인문학 언어에 적용할 수 있다. 하느님에 대한 말은 곧 인문학에서 찾는 진리에 대한 말로 보면 된다.

14) 같은 책, Qu. 13, art. 1, p. 33,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이 주체로 서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모든 말은 개념과 무관할 수 없으며 개념은 <사물의 유사>(rerum similitudines)다. 사물의 유사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거리로 말미암아 사람은 개체에서 벗어나 보편을 생각할 줄 알고, 다리를 땅에 딛고 일어나 먼 곳을 본다. 이 거리는 자유의 시작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 언어의 본새도 거기에 있다. 언어는 사람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사람 중심으로 서는 운동이다. 사실 그 거리 때문에 카씨러같은 사람은 모든 기호가 상징이라고 했다. 또는 모든 말이 다 상징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은유나 유비는 조금 다르다. 언어에 들어 있는 개념성 곧 동일성을 그대로 안고 있지만 개념에 들어오지 않는 현실을 담고 있는 언어다. 그런 언어를 가리켜 비로서 우리는 상징이라고 부른다. 은유는 개념이 개념에 그치지 않도록 훑는 언어다. 낱말로 보면 개념이지만, 은유는 낱말이 모인 문장의 술부에서 발생하면서¹⁵⁾ 개념끼리의 부조리와 부조화를 창출하고 그래서 긴장을 만들며, 거기서 낱말의 개념을 넘는 새로운 개념의 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다의다. 은유에서는 그 은유를 읽는 사람이 해석된다. 존재의 뜻이 내 뜻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이 되려면 것처럼 끌려가기만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언어는 은유와 달리 딱딱하고 논리가 있는 언어요 훨씬 개념 언어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다의만은 아니다. 유비는 순수 다의와 순수 일의 사이(inter puram aequivocationem et simplicem univocationem)에 있다.

진리를 파악하여 말하는데는 개념을 쓴다. 그러나, 진리의 실체는 그 개념으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개

15) 이 문제에 대해서는 리콤폴르, *La Métaphore vive*, pp.252,255.

념으로 그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예를들어 <하느님은 지혜이시다>는 말을 보자. 지혜라는 개념으로 하느님을 나타냈지만 결국 우리의 지혜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개념으로 하느님을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는 없다. 지혜를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마치 '표시된 것'(res significata)¹⁶⁾에 일정한 경계를 갖고 파악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¹⁷⁾ 일정한 경계를 갖고 파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 현실에 대한 진술은 지성의 산물이요, 지성은 개념으로 작용하며, 개념은 흠어진 것을 묶어 동일하게 보는 작업이라는 얘기다. 피조물에 대한 말은 그런 개념의 작용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하느님(존재론적 진리)에 대해서는 다르다. <하느님에게 대해 말할 때는 ... 표시된 사물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리고 명칭에 의한 표시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남겨 둔다>. 이름을 붙이고, 서술하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초월한다. <남겨 두는> 잉여분이 있다. 그래서 언어도, 남길 부분을 남기는 언어가 필요하다. 언어가 표현이지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잡아 두고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것이 은유이고, 유비다. 그러나 유비는 은유와 달리 개념이기 때문에 남긴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남긴 부분을 그대로 품고 있는 언어라면 겹뜻 언어가 될텐데, 그것은 시언어는 될지 몰라도 학문의 개념 언어는 될 수 없다. 은유가 아닌 유비가 필요한 까닭을 아퀴나스도 학문의 성립에서 찾는다. 겹뜻만 얘기한다면, <피조물로부터는 하느님에게 대해 아무것도 인식될 수 없고 논증될 수도 없다>. 하느님은 다의적이 아니고 유비적이다.¹⁸⁾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 가능하다.

16) 선이라는 말의 뜻이 가리키는 것.

17)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책, p.49, Qu.13, art.5.

18) 같은 책, Qu.13, art.5, p.52.

우리는 인문학의 언어가 시언어와 달리 어느 정도 개념 언어인 점을 말하기 위해 토마스 아퀴나스를 빌어 은유와 유비를 비교했다. 그러나 아퀴나스가 꼭 우리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은유(metaphora)의 예로 그는 하느님을 사자로 보는 것을 든다. 그것은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력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러한 명칭은 하느님에 대해서보다는 피조물에 대해 먼저 말해진다고 본다.¹⁹⁾ 사자를 보고 그 힘에 빗대어 하느님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은유다. 한편 은유가 아닌 어법으로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유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느님은 선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자로 본 그림 언어와 달리 선이라는 개념 언어를 쓴 것이다. 그런데, 그 개념 역시 사람의 선을 보고 하느님의 선을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빗대어 말한 것이다. 개념 언어는 은유의 그림 언어와 달리 빗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피조물의 성질에 빗대어 하느님을 묘사하는 것이다. 같은 개념 언어이면서도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의 개념과 인문학의 개념이 다른 점이 그것이다. 인문학의 언어는 결국 빗댄 것이다. 피조물에 빗대어 하느님을 말하고, 감각의 세계에 빗대어 초월 세계를 말하며, 물질의 세계에 빗대어 정신 세계를 말한다. 그러나 유비가 철저하게 은유와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명칭에 의해 표시된 사물에 관한 한 피조물에 대해서 보다는 하느님께 대해 더 먼저 말해진다>는 점이다.²⁰⁾ 사람의 선함을 보고 하느님의 선하심을 말했지만, 선에 관한 한 하느님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선의 인식에서 보면 피조물이 먼저 다가 오지만, 존재로 보면 하느님이 먼저다. <이 첫째인 하나(unum primum 하느님)는 다의적이 아니고 유

19) 같은 책, p.55, Qu.13, art.6.

20) 같은 책, Qu.13, art.6, p.56.

비적인데 '그것은 존재다'(analogicum quod est ens)²¹⁾라는 말도 그 뜻이다. 은유가 저쪽에서 오는 말을 그대로 품고 있는 언어라면 유비는 비록 빗대기는 했지만 저쪽을 가리키는 언어다. 은유는 뜻이 여러 겹이지만 유비는 그렇지 않다. 물론 빗댄 말이기 때문에 딱 떨어져 바로 써먹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다. 인문학 언어가 그렇다.

맺는 말

인문학은 은유에 기대고 있는 언어로서, 은유의 역할을 다시 강조해야 한다. 아퀴나스 역시 시에서 쓰는 말이나 표상(representatio)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 방법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갖는 인식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는 무엇인가(quid est)보다는 무엇이 아닌가(quid non est)가 우리에게 더 명백하다. 따라서 ... 그런 빗댄은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느님에 대한 더 참된 평가를 하게 한다>.²²⁾ 인문학이 찾는 진리가 다 그렇지 않은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보다는 무엇이 아니가를 말하기가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그런데, 것처럼 말하고 생각한 것을 넘어 있는 진리를 말하는 방법은 은유다. 그러면서 은유는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인문학은 은유가 불러 일으킨 새로운 생각을 말로 한다.

오늘날 시언어인 은유의 역할은 분명하다. 근대를 치유하는 것이다. 해방을 위해 치고 나온 세상을 다시 돌아 보는 일이다. 잃어 버린 거룩함을 다시 돌아 보는 일이다. 떼어 놓았던 거리를 극복하는

21) 같은 책, Qu.13, art.5, p.52.

22) 『신학대전 1』, 정의채 역, Qu.1, art.9, p.42.

일이다. 근대의 반성과 달리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이다. 시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씨니피앙이 된다. 바위와 돌도 말을 한다. 만물이 살아난다. 대상(對象 object)이 아니고 상대(相對)만 있을 뿐이다. 서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신을 다시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원시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다.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다른 억압이다. 사람이 다시 객체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자연이나 신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다시 객체가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억압 관계가 된다. 사람의 주체성, 정치로 보면 국민 주권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사람의 뜻, 국민의 뜻과 함께 저쪽에서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람과 하느님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로 서로 상대하는 세상을 그려야 한다. 시언어는 그 풍요로움을 그린다. 은유는 그 넉넉함을 담고 있다. 인문학의 장도 거기에 있다. 그것은 인류가 찾는 새로운 해방의 길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되, 은유에 들어 있는 상상력을 현실 변혁을 위한 개념 언어로 바꾸어야 한다. 인문학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 시언어인 은유는 인문학 언어에서 한 번 풀리고, 인문학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 과학에서 다시 한번 뾰족한 언어가 되어 현실을 개혁하는 구체적인 언어가 된다. 인문학없이 인류는 겸손해 질수도 없고, 넉넉해 질 수도 없고, 문명의 방향을 가늠할 수도 없고, 현실을 개혁할 수도 없다.

근대는 현재 중심의 구도로 주체를 확립하려고 했다. 것처럼 삶을 주도하고 세상을 재단하려는 움직임이 정보 사회에서 순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순간 중심에는 미래가 없다. 현재를 즐기는 것도 아니다. 주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그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언어는 은유 그리고 거기에 기댄 인문학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깊이를 잃어버렸다.

헤겔의 법철학은 자유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를 추상법으로 본다. 그가 말하는 추상법은 우리가 말한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합작물이다.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그것이 소유권이다. 그리고 그러한 소유권은 인간과 인간의 의사의 일치 곧 계약과 함께 발생한다. 사람 대 자연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그러한 헤겔의 추상법은 과연 자유를 향한 과정이다. 은유 없는 과학, 그리고 개념 언어를 우리는 인간 해방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헤겔 자신이 추상법은 한 과정이요 참된 자유는 가족이나 국가같은 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했다. 사실 공동체의 언어는 날카로운 개념 언어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 언어는 은유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은유가 회복되려면 헤겔의 개념이나 절대지로는 안된다. 은유의 문제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개방이요 희망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삶의 확장이지만 그것은 절대지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과 희망의 지(intellectus fidei et spei)다. 우리는 이렇게 본다. 할 말을 다 하는데 역점을 둔 근대의 개념 언어는 분명히 인간 해방에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이면서 동시에 억압을 안고 있다. 한 말로 할 말을 버리기 때문이다. 또는 할 말을 품은 은유의 존재론적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한 말이다. 하이데거가 근대의 자연 과학과 기술을 염두에 두고, 구원을 시언어의 회복에서 찾은 것도 그 때문이다.

2. 인문학의 개념 언어:유비, 빗대어 말함

쓸모와 무관한 학문은 없다. 그러나 당장 쓸모를 따지는 한, 인문학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인문학이 찾는 삶의 의미나 진리 물음은 정의를 찾는 사회 과학이나 사실을 찾는 자연 과학에 밀리게 된다.

경쟁을 위해 그것은 생산성이 없고 투쟁을 위해서도 크게 쓸모가 없다.4) 그러나 사람에게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결국 정신에 있다. 물질을 다루는 언어가 중요하지만 결국 정신 언어가 필요하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존재 신비를 담는 언어가 없다면, 사람은 남한테 이길 수 있어도 자신한테 이기기 힘들다. 자연과 신에게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승리는 결국 자신에 대한 패배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인류 문명의 미래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근대의 주체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주체를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자연 과학을 통해 사람은 자연과 신에 대해 주체로 서고, 사회 과학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주체로 서고자 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 주체로 서는 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과 신에 대해 주체로 선 것은 그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 근대에는 자연과 신을 객체로 만들면서 사람이 주체로 섰다. 그러나 이제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신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서야 한다. 사람이 주체로 선 것은 계승하면서 자연과 신도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자연과 신을 주체로 본다는 것은 저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다. 귀속을 뜻한다. 하이데거의 말로 하자면 <세계 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대의 개념 언어는 사람을 주체로 세우기 위해 떨어지는 언어였다. 거리를 두는 언어였다. 그러나 이제 귀속의 언어 곧 은유가 필요하다. 인문학 그리고 시가 필요한 시대다. 떨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은 자유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유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만남에 자유가 있다. 떨어지고 만나고, 떨어져 주체가 된 다음 다시 만나면서 서로 귀속되어 있음을. 이

4) 오늘날 시 언어가 산문으로 되고 은유의 맛이 사라지는 것은 그런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